

IBKS CARBON FINANCE DIVISION

Invitation to Better Karbon Story

WEEKLY REPORT
VOL.7
2025.07.28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TOP HEADLINES

- EU 회원국, 2025년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량 75% 배분 완료
- 영국 ETS, 2029년까지 해운·폐기물·탄소제거 부문 단계적 포함
- 영국, ETS 통합 위한 탄소제거 표준 초안 발표
- 대만, 탄소 배출 부과금 제도에서 탄소누출 기준 명확화 예정
- EU-일본, COP30 앞두고 기후 협력 강화 약속
- 구글, 무탄소 전력 위해 이산화탄소 배터리 기업과 계약 체결
- 인도, 2027년 CORSIA 대응 위해 탄소 크레딧·SAF 전략 수립
- IEA, 2024년 세계 석탄 수요 사상 최고치 경신, 2026년 감소 전망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EU 회원국, 2025년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량 75% 배분 완료

유럽위원회는 EU 회원국이 2025년 EU 탄소배출권 제도 무상 할당량의 75.1%를 이미 배분 완료했다고 밝힘.

2025년 할당량은 작년대비 4.5% 감소한 총 4억8,128만 톤. 그 중 약 75%인 3억6,176만 톤이 이미 기업에 발행됐고, 약 1억1,900만 톤이 남음.

Phase 4 (2021~2030년)에서는 기업이 매년 3월 31일까지 활동 수준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무상할당량을 결정. 생산량이 직전 2년 평균 대비 15% 이상 증감 시 무상 할당의 조정이 필요해 행정절차가 복잡해졌고, 이로 인해 과거 보다 배분 시점이 지연되는 중

독일, 폴란드 등은 배분을 거의 완료했으나 일부 국가는 아직 배분을 시작하지 못한 상태. 이는 데이터 계산 완료 전 배출권을 선지급한 국가가 있는 반면, 일부는 활동 수준 데이터를 확정 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

과거에는 기업들이 잉여 배출권을 시장에 매도하며 매도 압력이 컸지만, 최근에는 미래 부족에 대비해 보유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추세



영국 ETS, 2029년까지 해운·폐기물·탄소제거 부문 단계적 포함

영국 정부는 향후 4년 내에 해운, 폐기물, 온실가스 제거 (GGR) 부문을 국가 배출권거래제 (UK ETS)에 통합할 계획

해운 부문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ETS에 포함되며, 적용 대상은 국내 항해를 수행하는 총톤수 5,000톤 이상의 선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가 될 전망. 다만, 정부의 비상업적 해운 활동은 적용 대상에서 면제

폐기물 부문은 2026년부터 2년간 자발적 모니터링·보고·검증 (MRV) 기간을 거친 후, 2028년부터 ETS에 통합될 예정

온실가스 제거 기술 (GGR)은 2029년 말까지 ETS에 완전 편입될 예정이며, 해당 프로젝트는 최소 200년 이상 탄소를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UK ETS에 포함될 수 있을 전망

동 발표는 영국이 EU와의 ETS 연계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장기적 기후목표 달성 및 탄소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신호로 해석



영국, ETS 통합 위한 탄소제거 표준 초안 발표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은 엔지니어링 기반 탄소 제거 (CDR) 솔루션의 정량화를 안내하기 위해 BECCS*와 DACCS* 관련 표준 초안을 공개

동 초안은 프로젝트가 얼마나 확실하게 탄소를 줄였는지 계산하는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2028년 법제화 후 2029년 말 ETS 적용이 목표

핵심 내용:

- **저장 방식**: 포집한 CO₂는 반드시 지하에 영구 저장, 연료·화학제품 활용 불가
- **배출량 계산**: 건설부터 운영,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을 포함해 실제 감축량 계산
- **프로젝트 기간**: 최소 15년 이상, 25~50년 장기 관리 권장
- **안전 장치**: 저장소 누출 등 역전 위험은 보험 등으로 관리
- **국제 호환성**: 국제 탄소시장 (파리협정 제6조)과 호환 가능

*BECCS (Bioenergy with Carbon Capture and Storage)

: 바이오매스를 에너지원으로 사용,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CO₂를 포집해 지하에 영구 저장하는 기술

*DACCS (Direct Air Carbon Capture and Storage)

: 공기 중에서 직접 CO₂를 화학적 공정으로 포집해 지질 저장소에 영구 저장하는 기술



대만, 탄소 배출 부과금 제도에서 탄소누출 기준 명확화 예정

대만 정부는 8월 초까지 탄소누출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 밝힘.

2024년 도입된 대만의 탄소 부과금 프로그램 (carbon levy program)에 따라, ‘탄소누출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류된 산업이 자발적 배출 감축 계획을 제출할 경우, 배출량에 대한 조정 계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과도한 규제로 생산 거점이 해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정부는 기업이 탄소누출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산업 분류’와 ‘국제 경쟁력’ 두가지 측면을 고려 중이라 밝힘.

산업 분류는 배출량과 교역 집약도를 기준으로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과 같은 탄소 집약 산업이 포함

국제 경쟁력은 총이익률, 탄소 부과금이 총 이익에 미치는 영향 (약 20~30%), 덤핑 위험 등을 고려할 예정

한편, 대만은 탄소부과금을 토대로 2026년에는 기업별 할당량과 거래시장을 갖춘 ETS를 조기 가동하고, 2027년에는 수입 철강·시멘트에 적용하는 자체 CBAM을 시행하려는 ‘3단계 탄소가격 전략’을 추진 중. 세 제도가 어떻게 연계·병행 운영될지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



EU-일본, COP30 앞두고 기후 협력 강화 약속

EU와 일본은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릴 COP30을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

양측은 파리협정의 핵심 목표인 지구 평균온도 1.5°C 상승 제한 달성 의지를 재확인하며, 이를 위해 탄소 가격 정책을 핵심 감축 수단으로 삼을 방침

특히 일본이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의무적 배출권 거래제(ETS)를 통해 양측 간 협력을 강화하고, EU의 탄소 국경조정 메커니즘(CBAM)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예정

EU와 일본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 3배·에너지 효율 2배 증대를 목표로 삼은 COP28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순환 경제·배출권거래제·청정기술·핵심 광물·차세대 태양 전지·메탄 감축·전환금융·생물다양성 보호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 방안을 제시



구글, 무탄소 전력 위해 이산화탄소 배터리 기업과 계약 체결

구글이 이탈리아 에너지 스타트업 에너지 돔 (Energy Dome)과 장기 에너지 저장 전략적 협약을 체결함.

에너지 돔은 과잉 전력을 이산화탄소로 압축·액화해 저장하고, 필요 시 이를 팽창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CO₂ 배터리 기술을 보유

해당 배터리는 8~24시간 연속 전력 공급이 가능해 구글 데이터센터와 AI 컴퓨팅 수요 증가에서 요구되는 기저부하 및 유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돔 배터리는 또한 기계적 회전 장치를 활용해 자연 관성 (natural inertia)을 제공함으로써 태양광·풍력 프로젝트가 제공할 수 없는 전력망 안정성을 지원하고, 그리드 복원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

에너지 돔의 기술은 리튬·구리 등 희귀 자원 의존도를 낮추어 유럽의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구글은 이번 협약을 통해 2030년까지 자사 운영 전력을 24시간 내내 탄소 제로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운영 목표에 근접, 에너지 돔은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에서 실증 플랜트를 가동했으며, 연내 20MW 규모 상용화 설비를 완공할 계획



인도, 2027년 CORSIA 대응 위해 탄소 크레딧·SAF 전략 수립

인도가 2027년부터 시작되는 국제 항공 탄소 상쇄 및 감축 제도 (CORSIA)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항공사가 필요로 하는 탄소 크레딧 확보 및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SAF) 확산 전략을 추진 중

인도 민간항공총국 (DGCA) 부국장은 인도가 그동안 개발도상국 지위로 상쇄 의무에서 제외됐지만, 모니터링·보고·데이터 검증 절차를 사전에 완료했고, 의무 단계가 시작되면 상쇄를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고 밝힘.

석유가스부는 이미 SAF 혼합을 의무화했으며, 혼합 의무 비율은 2027년 1%에서 2030년 5%로 단계적 상향될 예정. ICAO 연료 인증을 위한 국내 첫 SAF 인증 기관도 설립

다만 SAF 비용이 기존 제트 연료의 3~4배에 달해 초기 부담이 큰 상황으로, 인도 정부는 로드맵과 정책을 통해 이 격차를 일부 해소하려는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 밝힘.



IEA, 2024년 세계 석탄 수요 사상 최고치 경신, 2026년 감소 전망

IEA (국제에너지기구)는 2024년 전 세계 석탄 수요가 전력 수요 증가 및 가스 가격 급등 영향으로 1.5% 증가해 약 88억 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

미국과 EU에서는 가스 대신 석탄을 사용하면서 전력용 석탄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중국과 인도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력 저수지 보충으로 상반기 수요가 소폭 감소

중국은 전 세계 석탄 소비의 56%를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하지만, 과잉 공급으로 내년부터 생산이 감소할 전망. 주요 생산국 대부분은 낮은 가격과 수요 부진으로 생산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

IEA는 보고서를 통해 2025년 전 세계 석탄 수요가 소폭 더 증가하다가 2026년에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 밝힘. 인도는 재생 에너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2.5%가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EU와 미국은 2024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측



IBKS 탄소금융본부 사업

탄소배출권

■ 규제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국내 탄소배출권 장내 거래(KRX)
- 국외 탄소배출권 현물 거래(EU, 중국 등)

■ 자발적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VERRA, GS 등 매매
- 비규제 글로벌기업 대상 배출권 공급

■ 국내외 탄소배출권 사업개발

- 규제 및 자발적 시장 통용 가능 국내외 배출권 사업 개발 및 배출권 확보

환경에너지 파생상품

■ 에너지·원자재 선물 거래

- 탄소시장 유관 종목 개발 및 제공
- 원유, 납사, 곡물, EU배출권 등

■ 탄소배출권 펀드 개발 및 운용

- 업종별 특화 탄소배출권 펀드 상품화
- 국내외 탄소배출권 펀드 참여

■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조달

- PPA Offtaker / Spot REC 중개 & 주선
- 국내 발전소와 글로벌 RE100 기업 연계

탄소 금융조달

■ 구조화 상품 개발 및 중개

- Clean-Tech 기업 & 기술 & 설비 투자
- 주식, 채권, 원자재 등 파생결합분야 확대

■ 친환경 자산개발 PF

- 친환경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 스마트팩토리, 친환경공정설비 도입 등

■ ESG 특화 벤처 투자

- K-Taxonomy 기반 평가 및 금융 제공
- 기업 성장 동력 & Value & 수익 확보

■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IBK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수수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IBK투자증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BK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20호
(2026.03.17 ~ 2027.03.16)

IBK투자증권 탄소금융부

carbon@ibks.com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